

심층분석보고서

신협-일반직(부산)

2026.04.26

1장: 산업(섹터) 분석

1-1. 한국 상호금융업의 정의와 시장 구조

한국 상호금융업은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라는 다섯 협동조합형 비통화 금융기관이 이루는 시장이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그 준용 규정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 체계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따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별개 트랙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회원 중심'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며, 농·수·축협이 비조합원과도 거래할 수 있는 구조와는 결이 다르다.

자산 규모로 본 5대 상호금융의 위계는 농협 531조 원, 새마을금고 289조 원, 신협 151조 원, 수협 47조 원, 산림조합 14조 원 순이다. 5대 상호금융의 합산 자산은 2024년 말 기준 1,046조 원으로, 2018년 669조 원에서 6년 동안 56.3% 늘었다. 2025년 9월 말에는 1,072조 원으로 한 차례 더 팽창해 2015년 533조 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에 도달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14.8조 원에서 182.9조 원으로 12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상호금융권 성장의 질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가늠할 수 있다.

상호금융 본연의 정체성은 '서민·자영업·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PF, 토지담보, 공동대출, 비주택 담보대출이 자산 증가의 핵심 원천으로 굳어지면서 사업 구성과 본래 정체성 사이의 간극이 벌어져 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는 2024년 이후 '본업 회귀'와 '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압박하는 규제 흐름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신협 일반직이 입사 후 마주할 영업 환경의 변화 폭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1-2. 신협 가치사슬과 중앙회의 통합 인프라 기능

가치사슬 관점에서 신협은 다음 네 가지 흐름을 거친다. 우선 조합원 출자금과 예탁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가계·소상공인·부동산 대출에 집행하며 신협중앙회를 매개로 잉여 자금을 시장에서 운용한다. 이어 협동조합 보험인 '공제'를 판매하고, 마지막으로 조합 잉여를 조합원 배당과 사회공헌 사업으로 환류한다. 단위조합이 영업 일선의 기능을 담당하는 동안, 중앙회가 통합 인프라와 시장운용을 떠맡치는 이중 구조다.

신협중앙회는 866개 조합(2024년 말 기준)을 회원으로 두고 지도·검사·교육·홍보, 협동조합보험인 공제 인수, 여유자금 예탁과 시장운용, 결제망 지원,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통합 인프라 기능을 수행한다. 본부는 대전 둔산동에 위치하며, 12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울산경남, 인천, 경기,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가 권역별 영업과 지도·검사 실무를 받친다. 부산 지역본부는 부산 권역 신협 조합의 사업 지원과 검사 실무를 총괄하며, 부산 일반직이 입사 후 권역 단위 회의·교육·캠페인 자리에서 자주 마주칠 행정 단위이기도 하다.

신협 전체 자산은 2024년 기준 152조 원, 점포 1,712개, 조합원 약 671만 명(2025년 상반기)이다. 자산 기준으로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서민금융 3위 협동조합 권역이며, 65년 역사를 거쳐 단위조합과 중앙회 양 축으로 역할을 분담해 왔다. 신협공제는 2024년 말 자산 6조 1,274억 원, 당기순이익 131억 원, 지급여력비율(RBC) 333.7%로 안정적이며, 협동조합 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금감원이 감독한다는 점에서 제도권 보험에 가깝다. 공제는 별도 영업조직 없이 전국 약 817개 조합의 모집인 자격 임직원이 판매하므로 사업비 부담을 줄인 비영리 협동보험 모델로 운용한다.

심층 분석 보고서: 신한-일반직(부산)

1-3. 디지털 전환과 ON뱅크의 부상

상호금융업의 첫 번째 거대한 변곡점은 디지털 전환이다. 신한은 2020년 1월 상호금융권 가운데 가장 먼저 비대면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계좌 개설이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ON뱅크'를 출범시켰다. 출시 2년이 지난 2022년 가입자 15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 5월 282만 명, 2024년 하반기 누적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다. 출자금과 비과세(저율과세) 예·적금 가입의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청년층 조합원의 신규 유입 통로가 활짝 열렸다.

ON뱅크는 단순한 인터넷뱅킹 앱을 넘어, 영업점에서 일반직이 수행하던 행정 업무 일부를 모바일 채널로 옮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적금 잔액의 약 31~33%가 비과세(저율과세) 상품에서 발생할 정도로 ON뱅크와 비과세 한도는 한 묶음으로 작동한다. 2024년 5월에는 고령층 조합원의 사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간편모드'를 도입했고, 자녀의 통장·체크카드 관리를 부모가 모바일로 처리하는 아이서비스, 바이오인증 기반 핸즈온 등을 추가해 가입자 외연을 넓혀 왔다.

다만 디지털 채널의 외형 성장과 별개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대비 사용성·기능성 격차는 여전한 과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신한 조합원 수가 671만 명으로 정점이었던 2023년 상반기 약 680만 명에서 약 7만 명 줄어든 흐름은, 청년·중장년층 자산이 시중은행 모바일 채널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한 일반직은 영업점에서 ON뱅크 기반 비대면 가입을 권유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로 영업점 창구에 의존하는 고령 조합원을 보살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떠맡는 구조에 놓여 있다.

1-4. 금리 상승기와 부동산 PF 부실의 후폭풍

상호금융업의 두 번째 변곡점은 금리 상승기와 부동산 PF 부실이 동시에 들이닥친 충격이다. 2020~2021년 저금리 환경에서 신한은 브릿지론, 토지담보대출, 공동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단일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장에는 다수 조합이 합쳐 함께 자금을 댄 공동대출 구조가 흔했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주택 부동산 PF로 흘러 들어갔다. 2023년 이후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리 급등이 겹치자, 그동안 누적했던 위험이 한꺼번에 표면화했다.

신협 연체율은 2022년 말 2.47%에서 2023년 말 3.63%, 2024년 말 6.03%, 2025년 상반기 8.36%로 가파르게 치솟았고, 이는 2009년 6월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비율)도 같은 기간 2.57%에서 8.53%로 점프했다. 2024년 신한 단위조합 합산 당기순손실은 3,419억 원으로 2002년 이후 23년 만의 적자였고, 2025년 상반기에도 누적 손실이 -3,333억 원에 달했다. 결산을 마친 신한 634곳 가운데 218곳(34.4%)이 적자로 돌아섰고, 연체율 10%를 넘는 조합이 20곳, 22%까지 치솟은 조합도 등장했다.

부실 대응 차원에서 신한중앙회는 2024년 5월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 'KCU NPL대부'를 출범시켜 약 4.3조 원 규모 NPL을 처리했고, 2025년에는 신한자산관리회사를 추가로 설립해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했다. 2025년 3월에는 17개 조합에 불건전채권 감축 조치가 발동했는데, 이는 전년도 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7배 늘어난 수치다. 880억 원에 이르는 PF 손실이 일부 조합의 건전성 등급 자체를 끌어내린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1-5. 건전성 규제 강화와 부실 정리 자회사화

상호금융업의 세 번째 변곡점은 금융위·금감원이 2024~2025년에 걸쳐 가동한 건전성 규제 강화 패키지다. 금융위는 2024년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단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2026년 3월까지 일부 유예 기간을 둔 채 의무 적용을 예고했다. 2025년 12월에는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일반직(부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 부동산+건설업 30%, 부동산업+건설업+PF 50%로 묶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10%로 가중하고, 70억 원 초과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심사를, 200억 원 초과는 중앙회 의무 참여를 적용해 공동대출 거버넌스의 빈틈을 메웠다.

자본 규제 측면에서는 신협, 수협, 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4%까지(2030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앙회 자본규제비율을 7%로 끌어올리는 안이 확정되었다. 2030년이라는 장기 시계가 붙어 있지만, 단위조합 차원에서는 자본 확충, 위험가중자산 줄이기, 총당금 추가 적립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다중 과제다. 입사 직후 일반직이 마주할 영업점 사정은 대출 한도 축소, 보수적 심사, 연체 회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2025년 말까지 평균 연체율을 4%대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농협 4.7%, 수협 7.82%, 산림조합 7.45%, 신협 8.35%로 권역별 격차가 컸고, 신협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2025년 상호금융조합 합산 당기순이익은 8,8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줄었으며, 신협의 회복 속도가 다른 권역보다 더디다는 점이 산업 분석의 핵심 함의다.

1-6. 2024~2026년 산업 지표 종합과 시사점

지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5대 상호금융 합산 자산은 1,072조 원(2025년 9월), 신협 자산은 152조 원(2024년 말), 신협 조합원 수는 671만 명(2025년 상반기), 신협 점포 수는 1,712개(2024년 말), 신협 연체율은 8.36%(2025년 상반기), NPL비율은 8.53%, 단위조합 합산 적자 3,419억 원(2024년)--3,333억 원(2025년 상반기), 적자조합 비율 34.4%(2025년 상반기 결산 기준 634곳 중 218곳)로 정리할 수 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은 명확하다. 첫째, 신협 일반직은 '성장 경영'이 아닌 '체질 개선·건전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어젠다 위에서 일을 시작한다. 둘째, 디지털 채널 ON뱅크의 외형 확대와 영업점의 고령 조합원 응대라는 두 가지 흐름이 한 사람의 책상 위에서 함께 돌아간다. 셋째, 부동산 PF·공동대출에 묶였던 자산을 서민·소상공인 대출, 비과세 예탁금, 공제로 다시 옮기는 본업 회귀 전략이 신입 직원의 KPI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면접 답변이나 자기소개서가 아니더라도, 입사 후 첫 1~2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일할지를 가늠하려면 이 산업 지표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이 출발점이 된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신협중앙회 vs 새마을금고중앙회 vs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3대 중앙회는 모두 단위조합의 통합·지원·감독·결제·공제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감독상 위상이 서로 다르다. 신협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을 적용 받으며, 감독 주체도 금융위·금감원과 행정안전부로 갈린다. 농협의 경우 2012년 신경분리 이후 NH농협은행이 1금융권 시중은행으로 떨어져 나갔고, 단위농협은 2금융권에 잔류해 '1·2금융 혼재 구조'를 가진다. 같은 협동조합 형식이어도 사업 다각화의 폭이 가장 넓은 곳이 농협이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 본연의 형태를 유지한 채 같은 트랙에서 경쟁한다.

소비자 인지도, 점포 분포, 자산 규모로 보면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한 발 앞서지만, 신협은 비과세(저율과세) 한도의 전국 통합 적용(간주조합원 제도)이라는 차별 요소를 통해 대형 자산가·노년층 자금을 끌어모아 왔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 트랙이라는 특수성 탓에 금융 규제와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2023년뱅크런 우려가 한 차례 번지면서 '준비된 안정감'에서는 신협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져갔다.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 NH농협은행을 통해 자금 운용·시장조달의 다양성을 확보한 대신, 단위농협의 영업 자

심층 분석 보고서: 신탁-일반직(부산)

울성은 신탁 대비 좁은 편이다.

2-2. 자산·적자 규모로 본 상호금융 4강의 위계

자산 규모와 적자 양상을 같이 들여다보면 신탁의 위치가 더욱 또렷해진다. 2024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가 1조 7,382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신탁이 3,419억 원, 수협이 창립 이후 최대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농협과 산림조합은 흑자를 유지했다. 적자 조합 수에서도 격차가 컸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신탁이 441개로 가장 많았고, 수협 66개, 농협 5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탁이 부실 충격 흡수 능력 면에서 동급 협동조합 보다 약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호금융 사고 통계도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2024년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합산 금액 2,077억 원 가운데 농협이 약 94%를 차지했지만, 사고 건수와 부당대출·횡령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곳은 신탁이었다. 단위조합 866개라는 분산 거버넌스의 그림자다. 농협이 단위조합 1,100여 곳을 두고도 1금융권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일정 수준 공유하는 데 비해, 신탁 단위조합은 조합별 독립성이 높아 내부통제 격차가 그만큼 크다.

서민금융 3대 협동조합 권역을 한 줄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은 자산 1위·다각화 1위·정체성 약화 우려, 새마을금고는 자산 2위·뱅크런 신뢰 회복 과제·행안부 감독, 신탁은 자산 3위·협동조합 정체성 강화·PF 부실 회복 과제. 이 가운데 신탁이 정체성과 본업 회귀 어젠다를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권역이다.

2-3. 신탁의 강점과 차별화 요소

신탁의 강점은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 중심의 비영리·민주적 거버넌스다. 1인 1표 의결 원칙을 따르며, 출자금에 따라 의결권이 늘지 않는 협동조합 원칙을 65년째 유지해 왔다. 둘째,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이다. 19세 이상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특특별세 1.4%만 부담하고 일반 세금이 면제된다. 출자금 1,000만 원(2024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 검토)까지는 배당소득이 완전 비과세다. 신탁만의 결정적 차별 요소는 '간주조합원 제도'로, 한 번 가입한 조합원이 전국 모든 신탁에서 비과세 한도를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다.

셋째,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다. 815해방대출(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어부바 효 예탁금(70세 이상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 다자녀 주거안정대출, 다문화 가구 지원, 어부바 위치알리미,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 등이 묶여 있다. 815해방대출은 2024년 9월 기준 누적 6.1만 건·6,331억 원, 어부바 위치알리미는 5만 2,000대 무료 보급, 다문화 가구 지원 누적 1,300억 원 같은 구체 수치가 따라붙는다. '평생 어부바' 슬로건 아래 5년간 2,839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고, 2015년 신탁사회공헌재단을 세워 '우리동네 어부바' 누적 13.8만 명 수혜라는 실적을 쌓았다.

넷째, 협동조합형 비영리 보험 '신탁공제'와 디지털 채널 'ON뱅크'의 결합이다. 공제는 22종 생명, 31종 손해 상품을 갖추고, 별도 영업조직 없이 약 817개 조합의 모집인 자격 임직원이 판매한다. 사업비를 줄이면서 조합원에게 보장성·저축성 보험을 폭넓게 제공하는 구조이며, RBC 333.7%(2024년 말)라는 높은 지급여력비율은 보험 본업의 안정성을 받쳐주는 지표다.

2-4. 신탁이 안고 있는 약점과 구조적 리스크

강점 만큼이나 신탁의 약점도 또렷하다. 첫째, 부동산 PF·기업대출에 쏠린 자산 구성이다. 신탁의 NPL은 2024년 7.5조 원에 달했고, 부동산 PF 총당금만 6,500억 원이 쌓였다. 2024년 23년 만의 적자 전환과 2025년 상반기 -3,333억 원 손실 누적은 자산 쏠림이 만든 직격탄이다. 둘째, 866개 단위조합으로 분산된 거버넌스 탓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격차가 크다. 일부 조합 이사장의 출장비, 골프 모임 여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었고, 도박자금 세탁 의혹이 불거진 사례까지 보도되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신탁-일반직(부산)

셋째,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대비 디지털 경쟁력 격차로 조합원 이탈이 처음으로 가시화했다. 신탁 조합원 수는 2023년 상반기 약 680만 명을 정점으로 2025년 상반기 671만 명까지 약 7만 명 줄었다. 2014년 이후 처음 본 감소 추세이며, 청년·중장년층 자산이 시중은행과 인뱅 모바일 채널로 흘러간 결과다. 넷째,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비중이 44.7%까지 올라 '서민금융 정체성 훼손' 비판이 따라붙는다. 비과세 특례를 누리려는 고소득자가 준조합원 자격으로 들어와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상호금융 비과세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고소득자·준조합원 우선)하기로 했다. 이는 신탁 자금 이탈 위험으로 이어진다.

다섯째, 인구 감소·고령화·지방 침체라는 거시 변수가 약점을 더욱 키운다. 적자조합의 절반 이상이 지방 소재이고, 부산과 세종은 적자조합 비율이 50%를 넘는다. 농촌 소형조합의 성장이 미미하다는 점은 신탁중앙회가 2026년 3월 신임 회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농촌·소형 조합 현장을 방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2-5. 최근 1~6개월 산업 이슈와 신탁의 대응

가장 큰 이슈는 PF 부실과 합병 흐름이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농협·수협·신탁·새마을금고 4개 권역에서 14건의 합병이 일어났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부실 조합과 우량 조합을 사전 매칭해 책임 인수 방식으로 합병을 유도하는 안을 주문했다. 이는 부실 조합이 시장에서 그대로 사라지기보다, 우량 조합이 흡수해 조합원 자산과 점포망을 보호하면서 권역 전체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림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2026년 3월 1일 신탁중앙회 신임 회장으로 고영철 전 광주문화신탁 이사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2030년 2월 28일까지이며, 취임 즉시 농촌·소형조합 10곳 현장을 찾아 일정을 시작했고, 본부 직제를 147개에서 123개로 줄이며 IT개발 조직을 분리했다. 국제협력 담당관, 개인정보보호 담당관, 자금세탁방지(AML) 담당관도 신설했다. 사업과 실행 중심으로 조직 무게추를 옮긴 개편이다.

세제 측면에서 정부가 2025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상호금융 비과세 특례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이 굳어졌다. 부유층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 비과세 한도가 본래 협동조합 정신과 멀어졌다는 평가가 정책 방향을 바꿨고, 약 1,000조 원 규모로 부풀어 오른 상호금융 자금의 일부가 시중은행 정기예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ESG·사회공헌 영역에서는 2025년 '신탁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투입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력해 '탄소 Zero 정원'을 조성했으며, E-순환거버넌스와 폐전자제품 재활용 협약을 맺었다. 2025년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윤식 당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PF 부실, 총당금 적립, 내부통제 실패를 점검받았고, 이는 신탁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임에도 이미 정치권의 시선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6. 부산 지역 신탁의 특수성

부산은 한국 신탁의 발상지다. 1960년 5월 1일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27명의 조합원·출자금 3,400환으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한 사건이 신탁의 기원이다. 그 정신은 지금도 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선구자 추모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부산 지역본부와 권역 내 조합들은 이 역사적 자부심을 마케팅·교육·사회공헌의 한 축으로 활용해 왔다. 부산진신탁(50주년), 부산성의신탁, 부산시중앙신탁, 한양신탁, 청십자신탁, 해운대신탁 같은 자산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조합들이 권역 안에 분포한다. 부산시중앙신탁은 메트로금융센터에 'CU문화센터'를 운영해 지역밀착 사회공헌의 본보기로 자주 거론되며, 부산진신탁은 50년 동안 헌혈 행사·삼계탕 나눔·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이어 왔다.

다만 부산은 동시에 PF 부실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다. 2025년 상반기 결산 기준 부산은 적자조합 비율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일반직(부산)

59.3%(16곳)로 세종(71.4%)에 이어 전국 2위였다. 부산시중앙신협이 -144억 원, 부산북부산이 -111억 원, 부산성리가 -214억 원, 부산치과의사신협이 -35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25년 3월 신협중앙회의 17개 조합 불건전채권 감축 조치 명단에도 부산북부산과 부산자갈치가 포함되었다. 이는 부산 권역 일반직이 '신협 정체성의 본향'이라는 자부심과 '건전성 회복 최전선'이라는 무게를 함께 짚어진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 권역 신협이 안고 있는 미시적 변수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부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빠른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자갈치·국제시장·서면·동래·해운대로 이어지는 전통 상권의 자영업자가 핵심 조합원층이다. 신협 영업의 미시적 토대가 흔들리면 곧바로 조합 수익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며, 본 보고서가 부산 권역 일반직의 직무 특성을 별도로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 수신·여신·공제·자금운용

신협 단위조합의 사업은 네 갈래로 짜여 있다. 첫째 수신은 예·적금과 출자금으로 구성하며, 비과세(저율과세) 예탁금이 핵심 상품이다. 둘째 여신은 가계대출, 사업자·기업대출, 부동산 PF, 공동대출, 비과세 예탁금을 담보로 하는 우대대출까지 포괄한다. 셋째 공제는 신협공제 22종 생명, 31종 손해 상품을 영업점에서 모집인 자격 임직원이 판매한다. 넷째 부수업무로 외환·지로·등기·전입신고 등 지역 거점 행정 서비스를 운영한다. 즉 신협 단위조합 한 곳이 시중은행 영업점, 보험 대리점, 행정 거점의 기능을 한꺼번에 떠맡는 형태다.

2024년 말 기준 신협 수신은 약 130조 원, 자산은 152조 원이다. 수신은 정기예탁금이 주류이며, 비과세 예탁금이 그 가운데 약 30~33% 비중을 차지한다. 여신 포트폴리오에서는 가계대출이 약 50% 안팎, 기업·소상공인·부동산 관련 대출이 나머지를 채운다. 공제는 자산 6.1조 원 규모로 단위조합 수익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공제 신계약 건수와 유지율은 단위조합 성과 평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진다.

신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채권·주식·간접투자 등으로 운용한다.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고, 채권시장에서는 상호금융권 대형 매수 주체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 단위조합 차원에서 대규모 PF·공동대출에 자금을 댄 경험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중앙회의 시장운용 부서가 자금 흐름과 부실 인식을 통합 관리하는 책임을 지닌다.

3-2. 신협중앙회 거버넌스와 신임 회장 어젠다

신협중앙회의 거버넌스는 회장과 이사회·총회·감사 체제로 구성한다. 회장은 단위조합 이사장·임원이 모인 대의원에게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2026년 3월 1일 취임한 고영철 회장은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출신으로 단위조합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인물이다. 취임 첫 일정은 농촌·소형 조합 10곳 현장 방문이었고, 이는 도시·대형조합 위주로 굳어진 신협중앙회의 시선을 농촌·소형으로 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신임 회장의 핵심 어젠다는 첫째 농촌·소형조합 성장 지원, 둘째 재무상태조합 정상화, 셋째 AI·디지털·핀테크 기반 혁신을 통한 수익 기반 확대로 정리한다. 본부 직제를 147개에서 123개로 줄여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고, IT개발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 차세대 IT 시스템 고도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개인정보보호·국제협력 담당관을 신설한 점은, 신협이 글로벌 금융 협동조합 네트워크 안에서 갖는 역할과 내부통제·정보보호 책임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전임 김윤식 회장 시기에는 4대 과제로 조합 대출 건전성 개선, 수익구조 정상화, 신사업 발굴, 차세대 IT 시스

심층 분석 보고서: 신한-일반직(부산)

템 고도화를 제시했다. 신·구 회장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신한중앙회의 중장기 어젠다는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본업으로 회귀하면서 PF·공동대출 쓸림을 풀어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일, 둘째 디지털 인프라와 자회사 구조를 다듬어 수익 구조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3-3. ON뱅크와 차세대 IT 시스템

ON뱅크는 신한이 디지털 정체성을 응축한 채널이다. 2020년 1월 출시 이후 4년 만에 누적 가입자 282만 명(2024년 5월), 약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었으며, 예·적금 잔액 16.5조 원(2022년 3월) 규모로 성장했다. 비대면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계좌 개설, 간편이체(1일 300만~1,000만 원), 아이서비스, 간편모드 등을 갖춘 상호금융권 대표 디지털 채널로 자리 잡았다. 신한이 비과세 한도 강점이 모바일 채널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이 ON뱅크의 결정적 매력 포인트다.

차세대 IT 시스템 고도화는 ON뱅크 너머의 어젠다다. 신한중앙회는 클라우드 전환, AI 기반 금융컨설팅, 핀테크 결합을 추진해 왔고, 2026년 신임 회장 체제에서는 IT개발 조직을 분리해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부서가 본부 안의 한 부서가 아니라 자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트랙으로 떨어져 나가는 변화는, 시중은행과 인뱅의 경쟁 속도에 발맞추기 위한 시도다. 일반직이 영업점에서 마주할 시스템 변화는 비대면 가입 절차의 자동화, 모바일과 영업점 사이 매끄러운 거래 연결, AML 알림의 자동화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디지털 전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다. 부산을 포함한 지방 권역의 고령 조합원은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영업점에서 통장·체크카드 발급, 이체, 공과금 납부 같은 거래를 처리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 따라서 신한 일반직은 ON뱅크 가입 권유와 영업점 거래 처리라는 두 흐름을 함께 다룬다. 디지털 응대를 잘하는 인재가 곧바로 영업점 응대를 게을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신한 일반직의 어려움이자 매력이다.

3-4. 8대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브랜드

신한의 차별화 요소를 한 줄로 요약하면 '평생 어부바' 슬로건이다. '어부바'는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는 모습에서 따온 낱말로, 조합원의 인생 전반을 신한이 떠받친다는 정서적 메시지를 담았다. 이 슬로건 아래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다. 815해방대출은 2024년 9월 기준 누적 6.1만 건·6,331억 원, 다자녀 주거안정대출은 최대 30년·3억 원 한도, 어부바 호 예탁금은 70세 이상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 어부바 위치알리미는 5만 2,000대 무료 보급, 다문화 가구 지원은 누적 1,300억 원, 우리동네 어부바는 누적 13.8만 명 수혜 같은 구체 수치가 따라붙는다.

사회공헌 인프라 측면에서는 2015년 신한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2024년까지 5년 동안 2,839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미션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 비전은 '혁신과 변화를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드는 금융협동조합', 핵심가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금융협동조합'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협동조합 정신을 마케팅 카피가 아니라 사업 모델 안에 녹였다는 점이 신한이 새마을금고·농협 대비 정체성 메시지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토대다.

부산 권역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은 두드러진다. 부산신한은 50주년 기념으로 헌혈·삼계탕 나눔·소상공인 컨설팅을 운영했고, 부산시중앙신협은 메트로금융센터 안에 CU문화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 음악·미술·요가·외국어 강좌를 제공한다. 부산성의신협, 한양신협, 청십자신협 같은 곳도 지역 학교·복지관·종교기관과 결합해 장학금, 노인 복지, 어린이 안전 사업을 이어 왔다. 부산 일반직은 입사 후 곧바로 이런 사회공헌 행사 운영의 한 축을 맡게 된다.

3-5. 리스크 요인 종합 진단

신협이 안고 있는 리스크는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PF-기업대출 쓸림은 2024년 7.5조 원 NPL, 6,500억 원 PF 총당금, 16년 만의 최고 연체율로 표면화했다. 둘째 인구·고령화·지방 침체는 적자조합의 절반 이상이 지방 소재라는 통계로 확인된다. 부산과 세종은 적자조합 비율이 50%를 넘는다. 셋째 시중은행·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은 디지털 경쟁력 격차로 조합원 수 첫 감소(2025년 상반기 -7만 명)라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규제 강화는 2025년 12월 PF 한도 20%, 부동산·건설업 가중치 110%, 순자본비율 4% 의무화 등으로 성장 모델 자체의 강제 전환을 요구한다.

다섯째 세제 변화는 비과세 특례 단계적 축소로 자금 이탈 우려를 키운다. 1,000조 원 규모로 부풀어 오른 상호 금융 자금의 한 부분이 시중은행 정기에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내부통제·금융 사고는 2024년 신한 사고 9건·28억 원, 일부 조합 횡령·부당대출·도박자금 세탁 의혹 같은 형태로 누적되었고, 2025년 정무위 국감에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점은 정치권 시선이 신한 내부통제로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다.

3-6. 신한중앙회의 자회사 전략과 부실 정리 인프라

신협중앙회는 위 리스크에 맞서 부실 정리 인프라를 자회사화하는 전략을 가동했다. 2024년 5월 출범한 'KCU NPL대부'는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로, 2024년 한 해 동안 약 4.3조 원 규모 NPL을 처리했다. 2025년에는 신한 자산관리회사를 추가로 세워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했다. 단위조합이 직면한 부실채권을 중앙회 자회사가 떠안아 정리하는 구조는, 단위조합의 영업 자율성과 권역 단위 위험 관리의 균형을 새로 짜겠다는 의도를 담는다.

이런 자회사화는 일반직의 일상 업무에도 영향을 준다. 영업점에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은 내부 절차에 따라 KCU NPL대부 또는 신한자산관리회사로 이관할 수 있고, 일반직은 이관 대상 채권의 자료 정리, 차주 통보, 회수 결과 보고 등의 후속 업무를 부담한다. 2025년 3월 17개 조합에 발동한 불건전채권 감축 조치, 880억 원 PF 손실, 적자조합 합산 3,977억 원이라는 수치는 이 흐름이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신협의 핵심 어젠다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공식 인재상 4가지의 의미

신협중앙회 공식 인재상은 네 가지로 명문화되어 있다. 첫째 '속도와 몰입'은 매사에 집중하면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재를 뜻한다. 협동조합 형식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가 늦어지는 일을 막겠다는 메시지다. 둘째 '협동조합 정체성·사회적 역할'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민금융 공급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가리킨다. 셋째 '글로벌 감각'은 국제금융협동조합 네트워크(아시아신협연합회·세계신협협의회 등)에서 협력을 이끌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넷째 '정직·투명성'은 항상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로 신협의 사회적 선명성과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릴 인재를 뜻한다.

이 네 인재상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2024~2025년 신협의 위기 국면에서 각각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면 의미가 또렷해진다. PF 부실과 단위조합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속도와 몰입'은 부실채권 회수와 자산 매각 속도를 끌어올리는 행동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협동조합 정체성'은 본업 회귀와 서민금융 공급 강화라는 어젠다를 떠받친다. '글로벌 감각'은 자금세탁방지(AML)·개인정보보호 같은 글로벌 표준 규제 대응으로 이어진다. '정직·투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일반직(부산)

명성'은 일부 조합 이사장 비위와 도박자금 세탁 의혹이 잇따른 상황에서 신입 직원에게 더 강하게 요구되는 자질이 되었다.

연수원 차원에서는 '더불어 스스로 앞으로(與·自·進)'라는 협동조합형 가치관을 강조한다. 협동(與)·자율(自)·진취(進)라는 세 글자에 신협이 직원에게 기대하는 행동 원칙이 압축되어 있다. 이는 시중은행이 흔히 강조하는 '도전·전문성·고객 중심'과 결이 다른 협동조합형 인재상으로, 부산 일반직 지원자가 영업점 일상 업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능하는 출발점이 된다.

4-2. 협동조합 정신과 '평생 어부바' 가치관

신협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려면 '협동조합 정신'이라는 추상 개념을 일상의 행동 원칙으로 풀어내야 한다. 협동조합은 1인 1표 의결권, 출자금 의결 비례 금지, 잉여 환원, 지역사회 기여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른다. 신협은 65년 동안 이 원칙을 지켜 왔고, 그 결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이라는 미션이 광고 카피가 아니라 사업 모델 안의 작동 원리가 되었다.

'평생 어부바'는 이 협동조합 정신을 정서적 언어로 옮긴 슬로건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는 이미지는 한국적 정서를 자극하면서 '한 번 조합원이 된 사람의 인생 전반을 신협이 떠받친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는 이 슬로건의 사업적 구현이고, 사회공헌재단의 5년간 2,839억 원 환원, 우리동네 어부바 13.8만 명 수혜 같은 수치는 슬로건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지표다. 부산 권역에서는 1960년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의 성가신협 설립 이야기가 이 가치관을 떠받치는 상징으로 작동한다.

조직 내부에서 이 가치관은 일상 행동 원칙으로 작동한다. 첫째, 조합원을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부르는 호칭 습관이다. 둘째, 단위조합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영업·수익보다 조합원 보호를 우선하는 결정 원칙이 작동한다. 셋째, 사회공헌 행사가 마케팅 활동이 아니라 직원의 정규 업무 안에 자리 잡는다. 부산 일반직은 입사 후 헌혈, 삼계탕 나눔, 노인 안전 사업, 다문화 가구 금융 교육 같은 행사 운영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4-3. 일반직(부산)이 요구하는 소프트스킬

부산 일반직이 요구하는 소프트스킬은 다섯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객응대 매너와 정서적 공감력이다. 부산 권역 신협의 핵심 조합원층은 고령자, 자영업·소상공인, 다문화 가구다. 고령 조합원은 모바일 사용이 어려워 영업점 창구에 의존하고, 같은 거래를 두세 번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친절함, 경청, 반복 설명, 정서 안정 능력이 곧바로 조합원 만족도와 재방문 빈도를 좌우한다.

둘째 영업·세일즈 마인드다. 텔러 직무라 해도 공제(보험), 신규 조합원 모집, 체크카드, 자동이체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영업점 한 곳의 신규 조합원 한 명이 곧바로 출자금 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고,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한 명이 단위조합의 수신 잔액 증가로 이어진다. 영업을 부담스러워하는 인재를 협동조합형이라 해도 이 직무에 잘 맞기 어렵다.

셋째 지역 네트워킹이다. 부산 권역 신협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모임, 종교기관, 학교, 동호회, 자치회와 결합한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다. 부산신협협회의 헌혈 행사, 부산시중앙신협의 CU문화센터, 부산성의신협의 지역 봉사단 같은 활동에 일반직이 운영자·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권역 안 다른 조합과의 교류도 활발하므로, 사람을 익히고 관계를 이어가는 태도가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넷째 꼼꼼함과 시재 관리다. 신협 일반직 업무의 본질은 시재(현금) 관리와 정확한 전산 입력이다. '1번 텔러·2번 텔러' 시스템으로 책임 단위가 명확하고, 수십~수백 건의 거래 가운데 한 건의 입력 오류가 시재 차이로 이어지면 곧바로 영업점 전체의 마감이 늦어진다. 꼼꼼함은 성격이라기보다 훈련 가능한 업무 습관이며, 입사 후 첫 6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일반직(부산)

개월 동안 가장 빠르게 배우는 자질 가운데 하나다.

다섯째 협업과 윤리의식이다. 단위조합은 인원이 적은 만큼 한 사람이 여·수신·공제·민원 응대를 한꺼번에 해내는 1인 다역 구조다. 임원·이사장·중앙회와의 다층 커뮤니케이션도 일상적이고, 의사결정의 무게가 한 사람의 어깨에 빠르게 옮겨오는 환경이다. 횡령·부당대출 사례가 사회적으로 자주 보도되는 흐름 속에서 정직·내부통제 의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는 신협중앙회 인재상 4번째 항목 '정직·투명성'과 맞물린다.

4-4. 영업·세일즈 마인드와 KPI 문화

신협 일반직의 KPI는 단순 창구 응대만으로 채울 수 없다. 수신 신규 가입액, 여신 신규 실적, 공제 신계약 건수, 신규 조합원 모집, 고객 만족도, 건전성·내부통제 등 여섯 항목이 KPI 안에 들어 있다. 이 가운데 공제와 신규 조합원 항목이 일반직 업무 중 영업·세일즈 마인드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협동조합형 보험을 영업점 임직원이 모집하는 신협공제 구조 탓에 일반직은 모집인 자격을 입사 후 사내 교육으로 취득하고, 영업점 차원의 공제 신계약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영업 압박의 강도는 조합 자산 규모와 이사장의 경영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크다. 자산 1,000억 원 안팎 조합은 신입 일반직 초봉 2,500~3,500만 원 + 상여 600% 수준이지만, 자산이 더 크고 영업 강도가 높은 조합은 인센티브 비중이 늘어 중견기업급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반면 영업 압박이 무거운 조합에서는 공제·신규 조합원·체크카드 같은 미세 KPI를 매주 단위로 관리해, 신입에게 부담이 되는 환경이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

이 KPI 문화를 협동조합 정신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신협 일반직의 핵심 과제다. 영업 KPI를 채우는 일과 조합원의 진짜 이익을 지키는 일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우선할지에 대한 답이 곧 그 조합의 문화이고, 그 문화의 한 단위를 일반직 한 사람이 떠받친다. 협동조합 정신을 강조하는 신협이라 해서 KPI 압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KPI 압박이 협동조합 정신을 거스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인재상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은 시중은행 영업점 문화와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4-5. 직장 후기·평판과 보상 구조

신협중앙회 본부 채용을 기준으로 보면, 캐치 사이트 기준 평균 연봉은 6,844만 원 수준이고, 사람인 추정치는 8,843만 원(2024년)이며, 신입 IT·일반직 초봉은 약 3,800~4,000만 원대로 평가받는다. 본부와 권역 단위조합의 보상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신협의 특징이다. 단위신협 신입 초봉은 자산 1,000억 원 안팎 조합에서 2,500~3,500만 원 + 상여 600% 수준이며, 자산이 큰 도시형 대형조합은 본부와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기도 한다. 보상의 '조합 by 조합' 격차가 큰 까닭에, 입사 전에 응시 조합의 자산·경영 상태·이사장 평판을 살펴보는 일이 일반직 진로 결정의 한 부분이 된다.

직장 후기·평판은 양가적이다. 잡플래닛에는 일부 단위조합의 부정 후기와 평점 1.2 같은 낮은 점수가 보이지만, 블라인드에서는 '신협 직원이면 본인이 원할 때 여·수신을 모두 배울 수 있고, 자산 규모가 큰 조합은 중견기업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는 긍정 평가가 함께 섞여 있다. '텔러도 카드·공제·대출 건수가 정해져 있어 실적 압박이 있다'는 후기와 '협동조합 분위기가 따듯하고 동료 관계가 끈끈하다'는 후기가 한 화면에서 공존한다. 익명 후기는 표본 편향이 있으므로 단독 근거가 아닌 참고 데이터로 활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조직 문화의 결을 한 줄로 요약하면 '협동조합 정서 + 영업 KPI'라는 이중 구조다. 협동조합 정서가 조직의 표면 톤을 따듯하게 만들고, 영업 KPI가 조직의 작동 엔진을 굴린다. 이 두 결이 균형을 이루는 조합에서는 신입 일반직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균형이 무너진 조합에서는 KPI 압박이 협동조합 정서를 짓누르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부산 권역의 대형 도시조합 가운데에는 두 결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 많고, 이는 부산이 신협 발상지라는

심층 분석 보고서: 신탁-일반직(부산)

역사적 자부심이 일상적 조직 문화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6. 내부통제·윤리의식의 부상

2024~2025년 신탁 위기 국면에서 가장 빠르게 비중을 키운 인재상 항목은 '정직·투명성'이다. 2024년 신탁 사고 9건·28억 원, 일부 조합 이사장의 출장비·법인카드 사적 사용·도박자금 세탁 의혹 같은 사고가 누적되었고, 2025년 정무위 국감에서 김윤식 당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PF 부실, 총당금 적립, 내부통제 실패를 점검받았다. 신탁중앙회는 2026년 신입 회장 체제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담당관을 신설했고, 영업점 일반직에게도 거래 모니터링·의심거래 보고·고객확인(CDD)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신입 일반직의 일상 업무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첫째 매 거래마다 본인 확인과 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빠짐없이 거치는 습관이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둘째 시재 차이, 전산 입력 오류, 업무 권한 위반 같은 작은 사안도 보고 라인 안에서 즉시 공유하는 문화가 굳어진다. 셋째 조합 이사장·임원의 업무 지시가 절차에 어긋날 경우 거절·보고할 수 있는 내부 채널이 마련된다. 신탁은 단위조합의 자율성이 큰 협동조합 형식이지만, 그 자율성이 내부통제 빈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조정 작업이 입사 직후 일반직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

윤리의식이 신탁 인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점은 부산 권역 일반직에게도 의미가 있다. 부산은 PF 부실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이고, 일부 조합이 17개 불건전채권 감축 조치 명단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영업점 한 사람의 정직한 거래 처리가 권역 단위 건전성 회복의 작은 한 부분을 받친다는 점이, 부산 일반직 직무의 사회적 의미를 키운다.

5장: 직무 분석

5-1. 일반직의 본질: 단위조합 종합금융 직원

신탁 '일반직'은 시중은행처럼 텔러·여신·외환·창구·관리 직군이 따로 구분되어 채용하는 구조와 다르다. 단위조합의 영업 전반(수신, 여신, 공제, 일반사무, 민원, 내부통제)을 모두 떠맡는 제너럴리스트형 정규직이다. 자소설닷컴에 게시한 모집공고 자체가 '신탁업무 전반(수신, 여신 등 금융사무업무 전반)'이라는 표현으로 직무 범위를 잡아 두고 있다. 부산 권역에서는 2026년 상반기 공동채용에 약 60명이 지원서를 작성할 만큼 모집 단위가 크고, 부산진·부산성의·부산시중앙·해운대·한양·청십자 등 다수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다(多)조합 동시 채용 구조다.

이 제너럴리스트형 구조는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한 사람이 여·수신·공제·외환·민원·내부통제까지 한꺼번에 다루므로, 입사 후 1~2년 안에 금융 실무의 폭이 시중은행 신입보다 더 넓게 열린다. 둘째 한 사람의 어깨가 떠받쳐야 할 책임의 무게가 만만치 않고, 학습 곡선이 가파르다. 입사 전후 자격증 취득과 사내 교육 참여가 다른 권역 채용보다 더 중요한 이유다.

일반직과 함께 운영되는 직군으로는 IT, 회계, 법무 같은 전문직, 그리고 사회공헌·홍보 같은 본부 직무가 있지만, 부산 권역 채용의 절대 다수는 단위조합 영업점에서 일하는 일반직이다. 본부 채용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하며, 권역 단위 공동채용에서 작성하는 일반직은 단위조합에 배치되어 영업점 한 곳을 거점 삼아 경력을 쌓는다.

5-2. 하루 단위 업무 흐름

신탁 일반직의 하루는 시재 점검과 전산 로그인으로 시작한다. 영업 시작 30~60분 전에 출근해 전날 마감했던 시재를 확인하고, 자기 자리의 단말기에 로그인하면서 각종 인증을 마친다. 영업 개시 시각인 09시 직전에 창구가 열리고, 입출금·이체·세금공과금 납부·예·적금 가입(비과세·저율과세 안내 포함)·체크카드 발급·통장 재발급 같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일반직(부산)

은 거래가 들어온다. 비과세 한도 안내, 간주조합원 제도 설명, ON뱅크 모바일 가입 권유가 거래 처리와 동시에 들어가는 일이 잦다.

점심 시간은 영업점 인원 사정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며,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그 거래까지 떠안는 협업 구조다. 오후에는 여신 상담의 비중이 늘어난다. 소액 신용대출, 담보대출, 소상공인 대출, 비과세 예탁금 담보 우대대출 같은 상품을 안내하고, 차주 신용평가 자료를 정리한다. 공제 상담도 오후에 빈번한데, 보장성·저축성·자동차 공제의 신계약 권유와 유지율 관리가 KPI 안에 있다. 16시 창구 마감 이후에는 시재 정산, 전표 정리, 연체 관리, 민원 처리, 내일 거래 준비를 진행한다.

마감 이후의 정리 작업은 시간이 빠듯하다. 시재 차이가 단 몇십 원이라도 발생하면 원인을 찾을 때까지 마감을 끝낼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별도 보고를 작성해야 하고, 연체 차주에게 안내 통보를 보내는 일도 마감 시간 안에 들어간다. 영업점 인원이 적은 단위조합일수록 한 사람의 하루가 단단하게 짜여 있고, 빈 시간을 사회공헌 행사 준비, 신상품 안내 자료 정리, 권역 회의 자료 검토 같은 부가 업무가 채운다.

5-3. 월·연 단위 업무 흐름

월 단위 업무에서는 결산과 영업 캠페인이 핵심이다. 월말 결산을 통해 한 달 동안의 수신·여신·공제 실적을 정리하고, 연체 회수와 만기예금 재예치 권유를 진행한다. 공제 신규 가입과 유지율 보고가 월간 단위로 본부에 올라가고, 신규 조합원 모집 캠페인과 비과세 예탁금 가입 캠페인이 월별 주제로 돌아간다. 내부 감사와 자금세탁방지 점검도 월 단위로 잡혀 있고, 사회공헌 행사(우리동네 어부바, 헌혈, 삼계탕 나눔, 다문화 가구 금융 교육 등)가 일정한 주기로 운영된다.

연 단위 업무 사이클은 1~2월 정기총회와 결산공시·배당 안내로 시작한다. 단위조합은 협동조합이므로 1년 동안의 잉여를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매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3월에는 정기인사와 보직 변경이 있고, 상·하반기에 신상품 출시(어부바 효 예탁금, 다차녀 주거안정대출, 815해방대출 등)가 이어진다. 5월에는 신협 창립 기념 행사가, 부산 권역에서는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 추모와 결합한 '선구자 추모식'이 함께 열린다. 연말에는 어부바 디지털 캠페인과 우수조합 시상식이 있고,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이 12월 중순부터 본격화한다.

연 단위 흐름의 또 한 부분은 평가다. 단위조합은 매년 자산 건전성 등급, 총당금 적립률, 순자본비율, 연체율, 공제 유지율, 신규 조합원 증가율 같은 지표로 권역본부와 중앙회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조합은 불건전채권 감축 조치, 경영개선 명령, 합병 검토 같은 후속 조치가 따른다. 일반직이 일상 업무에서 처리하는 거래 한 건 한 건이 결국 이 연 단위 평가에 누적된다는 사실이, 직무의 무게를 가볍지 않게 만든다.

5-4.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지도

내부 이해관계자는 다섯 갈래다. 첫째 같은 영업점 동료(텔러, 여신담당, 공제담당). 둘째 차장·부장·전무. 셋째 이사장(조합장)·이사회·감사. 넷째 부산지역본부(중앙회). 다섯째 신협중앙회 사업부문(공제·디지털·검사감독)과 KCU NPL대부, 신협자산관리회사 같은 자회사다. 이 가운데 이사장의 영향력이 단위조합에서는 매우 크다. 협동조합 거버넌스 특성상 이사장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표자이고, 단위조합의 영업 방향과 조직 문화를 결정한다. 신입 일반직은 이사장의 경영 스타일이 자기 일상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입사 첫 6개월 안에 익히게 된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여섯 갈래다. 첫째 핵심 조합원층(소상공인, 고령자, 근로자, 다문화 가구). 둘째 비조합원·준조합원 예·적금 고객. 셋째 지역사회(전통시장 상인회, 복지관, 학교, 종교기관, 자치회). 넷째 감독기관(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기금). 다섯째 협력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진흥원. 여섯째 부동산 PF·공동대출의 경우 시행사·시공사·차주가 추가된다. 부산 권역의 경우 자갈치·국제시장·서면·동래·해운대로 이어지는 전통 상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일반직(부산)

권의 자영업자, 부산항 인근 물류·해운 종사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구가 핵심 외부 이해관계자다.

이해관계자 지도가 복잡한 까닭에, 일반직은 입사 후 빠르게 '관계 지도'를 자기 머릿속에 그리는 훈련을 받는다. 단순 거래 응대만 하는 직무라면 이해관계자 지도가 좁지만, 신협 일반직은 1인 다역 구조 탓에 한 사람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는다. 한 거래를 처리하는 동안 조합원, 본부, 감독기관, 사회공헌 파트너의 시선을 함께 의식해야 한다는 점이 이 직무의 특이점이다.

5-5. 필요 역량과 자격증

필요 역량은 세 갈래로 정리한다. 첫째 금융 기초·상품 이해. 수신·여신·외환·공제의 기본 구조, 비과세·저율과세, 예금자보호(2024년부터 1억 원으로 한도 상향), 출자금 환급(신출자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부산 권역에는 외환 거래 비중이 일정 수준 있는 조합도 있어, 외환 기초까지 함께 익혀 두면 영업점 배치 후 적응이 빨라진다.

둘째 컴퓨터 활용 능력. 신협 통합 전산, ON뱅크 백오피스, 전자공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이 일상이다. 컴퓨터 활용능력 1급, ITQ 같은 자격이 기본 평가요소로 작동한다. 엑셀의 함수·피벗·매크로 활용 능력은 결산·실적 분석·내부 보고서 작성에서 빛을 발한다.

셋째 자격증과 사내 교육. 가장 선호하는 자격은 은행텔러로, 시재·수신·여신·신용카드·외환 실무를 검증하는 자격이며 신협을 비롯한 2금융권 텔러·일반직 채용에서 우대 대상이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신협의 간접투자 상품 판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는 자격이고, 투자자산운용사·AFP·신용분석사·회계관리 1급은 합격자 후기에서 빈번하게 보유한 자격으로 확인되었다. 신협공제 모집인 자격은 입사 후 사내 취득이 의무이며, 자금세탁방지 사내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소프트스킬은 4-3에서 살펴본 다섯 갈래(고객응대, 영업·세일즈, 지역 네트워킹, 꼼꼼함, 협업·윤리)와 같다.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이 입사 시점의 자질이라면, 소프트스킬은 입사 후 1~3년 동안 가장 빠르게 자라는 능력이다.

5-6. 6대 KPI와 성과 평가의 메커니즘

신협 일반직의 KPI는 단위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여섯 항목으로 구성한다. 첫째 수신 실적. 비과세 예탁금, 정기예탁금, 자유적립적금, ON뱅크 비대면 가입 유치액이 핵심 지표다. 둘째 여신 실적. 신규 가계대출, 소상공인 대출, 공동대출 주선 건수와 잔액, 그리고 연체율 관리(2025년 금감원이 4%대로 인하할 것을 권고)가 평가 항목에 함께 들어간다.

셋째 공제(보험) 가입 실적. 보장성·저축성 신계약 건수, 월납 환산보험료, 유지율이 KPI 안에 자리 잡는다. 신협 공제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별도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영업점 임직원이 모집인 자격으로 판매하므로, 일반직의 공제 실적이 단위조합 손익에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신규 조합원 모집. 출자금 신규 가입자 수가 평가에 반영되며, 2023년 상반기 정점 약 680만 명에서 2025년 상반기 671만 명까지 약 7만 명 줄어든 흐름이 신협중앙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영업점 차원의 신규 조합원 모집 압박은 이전보다 커지는 추세다.

다섯째 고객 만족도와 민원 관리. 전자공시의 '민원공시' 환산건수(만 명당 민원건수)가 단위조합과 일반직 모두에게 공개 평가지표로 작용한다. 민원이 누적되면 권역본부 평가에 반영되고, 신입 일반직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여섯째 건전성과 내부통제. 자산건전성 등급, 부동산·건설업 총당금 적립률(130% 단계 적용), 순자본비율(2030년 4%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보고 정확성이 평가 항목에 들어 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신탁-일반직(부산)

이 여섯 KPI 가운데 영업·세일즈 비중이 큰 항목과 건전성·내부통제 비중이 큰 항목이 한 사람의 평가표 위에 함께 놓여 있다는 점이 신탁 일반직의 특이점이다. 영업점 한 명의 직원이 한 시간 동안 비과세 예탁금 가입을 권유하다가, 곧바로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 행사 준비 자료를 만드는 식의 업무 전환이 일상이다.

5-7. 부산 권역 일반직 직무의 특수성

부산 권역 일반직 직무는 두 갈래의 특수성을 가진다. 첫째 '신탁 발상지'라는 역사적 자부심이 일상 업무 안에 녹아 있다. 1960년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의 성가신탁 설립이 신탁의 출발이었고, 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선구자 추모식, 부산진·부산성의·부산시중앙 같은 대형 조합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 자부심을 떠받친다. 부산 일반직은 입사 후 이 역사적 서사를 일상 업무 가운데 자연스럽게 익히고, 신탁 정체성의 분향이라는 메시지를 사회공헌 행사·고객 응대·신상품 안내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PF 부실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로서 건전성 회복 최전선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 2025년 상반기 결산 기준 부산 적자조합 비율 59.3%, 부산시중앙(-144억 원)·부산북부산(-111억 원)·부산성의(-214억 원)·부산치과의사(-355억 원) 같은 손실, 2025년 3월 17개 조합 불건전채권 감축 조치에 부산북부산·부산자갈치 포함 같은 사실은 부산 권역 일반직이 입사 후 마주할 영업 환경의 무게를 보여준다. 영업점에서 처리하는 수신·여신·공제·민원 거래 한 건 한 건이 권역 단위 건전성 회복에 작은 한 부분으로 누적된다는 사실은, 부산 일반직 직무의 사회적 의미를 키운다.

부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빠른 도시 가운데 하나다. 자갈치·국제시장·서면·동래·해운대의 전통 상권 자영업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구, 노년층 조합원이 부산 권역 신탁의 핵심 고객층을 이룬다. 디지털 전환과 영업점 응대를 한 사람이 동시에 떠맡는 신탁 일반직 직무 구조는, 부산 권역에서 그 의미가 더 두텁게 작동한다. 디지털을 잘하면서도 영업점에 발을 디딘 고령 조합원에게 따뜻하게 응대하는 일이, 부산 신탁 일반직이 매일 떠맡는 두 흐름의 가운데에 놓여 있다.

지원 전략 관점의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권역 일반직은 신탁 정체성의 분향이라는 자부심과 PF 부실 회복 최전선이라는 무게를 함께 떠받친다. 둘째 디지털 채널 ON뱅크 응대와 고령 조합원 대면 응대가 한 사람의 책상 위에서 같이 굴러간다. 셋째 협동조합 정신과 영업 KPI라는 두 결의 균형이 단위조합 문화를 좌우하고, 자산 규모가 큰 도시형 대형조합일수록 그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넷째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정직·투명성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흐름이 일반직 일상 업무에 곧바로 반영된다. 부산 권역 일반직 직무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이 네 흐름이 한 사람의 하루 안에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그려내는 작업이다.

핵심 참고 URL 28선

A. 글로벌·국내 정책·연구·통계

- 금융위원회 -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 규제개선 보도자료(2024.12)
- <https://www.fsc.go.kr/no010101/83510>
- 한국경제 - 상호금융 1000조 공룡 키운 비과세(2025.7)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746341>
- 파이낸셜뉴스 - 상호금융 PF 대출 20% 제한 규제 강화(2025.12)

심층 분석 보고서: 신탁-일반직(부산)

- <https://www.fnnews.com/news/202512230904576002>

4. 이투데이 - 상호금융 부동산·PF 쉐림 브레이크(2025)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38812>
5. Fortune Korea - 상호금융 관리 구멍가게
-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25>
6. 한국경제 - 새마을금고·수협·신탁 60년만 최악 적자(2025.3)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105021>
7. 한국은행 - 신용협동조합 점포현황 통계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801/view.do?nttId=340&menuNo=200561&pageIdx=98>
8. 공공데이터포털 - 금융위 신탁 통계 API - <https://www.data.go.kr/data/15061337/openapi.do>

B. 언론 분석 (PF·연체율·구조조정)

9. 녹색경제신문 - 흔들리는 신탁, 연체율 8.36%(2025.11)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3199>
10. 녹색경제신문 - 신탁 조합원 이탈 가속(2025)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3846>
11. 서울경제 - 신탁 조합 3곳 중 1곳 적자(2025)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9518>
12. 서울경제 - 신탁 부실 조합 속출(2025.3)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4305NP0>
13. 딜사이트 - 신탁 수익 구조 전환 시험대 - <https://dealsite.co.kr/articles/154147/083200>
14. 한국금융신문 - 17개 조합 불건전채권 감축 조치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5070845535888957e88cdd5_18
15. PinPoint - 2025 국감, 신탁 리스크
-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446>
16. 헤럴드경제 - 신탁 자산관리사 설립 착수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22952>
17. 이데일리 - 6.7조 부실PF에 발목 잡힌 상호금융
-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4887206642205656>
18. Pressman - 23년만 적자, 고영철 신임 회장 위기 돌파
- <https://www.pressman.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91>

C. 신탁 공식 IR / 뉴스룸

19. 신탁 - 신탁이란(자산 152조, 866개 조합, 1712 점포)
- <https://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23&cntntsId=1088>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일반직(부산)

20. 신협	-	신협중앙회	조직구성(12개	지역본부)
- https://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26&cntntsId=1009				
21. 신협	-		핵심가치	페이지
- https://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15&cntntsId=1003				
22. 신협	-		인재상	페이지
- https://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71&cntntsId=1037				
23. 신협	-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	페이지	
- https://www.cu.co.kr/story/client/people_2.html				
24. 신협	-	공제	안내(자산	6.1조, RBC 333.7%)
- https://www.cu.co.kr/product/cm/cntnts/cntntsView.do?mi=100183&cntntsId=1235				
25. 헤럴드경제	-	김윤식	회장	2025 비전선포식·공제 6조 돌파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61364				
26. FETV	-	고영철	신임	회장 취임사(2026.3)
-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214447				
27. 한국경제	-	평생	어부바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545691				
28. 한국경제	-	비대면	비과세	ON뱅크 가입자 추이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4209158i				

D. 채용·평판·부산 지역 신협

29. 자소설닷컴	-	2026 상반기 신협 공동채용(부산 60명)		
- https://jasoseol.com/recruit/103752				
30. Catch	-	신협중앙회	평균연봉	6,844만원
- https://www.catch.co.kr/Comp/CompSummary/042965				
31. Blind	-	신협	텔러·연봉	후기
- https://www.teamblind.com/kr/company/%EC%8B%A0%ED%98%91/posts/%EC%8B%A0%ED%98%91%20%ED%85%94%EB%9F%AC				
32. 부산진신협 공식 사이트	-	https://www.busanjincu.co.kr		
33. 부산시중앙신협 공식 사이트	-	https://busan.cu.co.kr/index.do		
34. 부산성의신협 공식 사이트	-	https://www.bssucu.com/		